

열 사람이 모여 열 걸음 내딛는 희망동네

글 · 최이삭 redsummer312@gmail.com



희망동네 유호근 사무국장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보고 있을 때였다. 사장님이 '제3의 물결'은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사전에서는

후기 산업화 사회이며 정보화 사회인 제 3의 물결의 시대를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까지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가 맞는다면 2010년인 지금은 제3의 물결이 끝났거나, 적어도 제3의 물결의 마지막 물기를 닦아내는 시기였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인 제 2의 물결의 사회라도 완전히 벗어난 사회이냐를 물었을 때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산업사회의 특징인, 세분화된 공정을 지휘하고 사업을 대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합의 패러다임이 여전히 각광받고 있으며, 정부가 강제로 진행하는 거대사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적어도 시민의식과 정치형태

에서는 제 2의 물결과 제 3의 물결의 시대가 바통터치를 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

산업이 날개를 달아가는 동안 인간의 의식은 오랜 정체에 빠져 있었다. 의식의 지표를 도식화하는 정치 형태가 기술의 비약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낡고 억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현실의 대안은 '정치에는 투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념의 환상을 벗어나 정치에는 투표밖에 없는 현실에 생활적인 정치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2의 물결의 정치가 대의정치였다면, 제 3의 물결의 정치는 주민정치의 보완일 것이다.

지난 4월 15일 동작구의 희망 나눔 동작 네트워크(이하 희망동네)를 찾았다. 희망동네는 2004년 3월에 문을 연 풀뿌리 주민단체다. 철거지역의 방과 후 공부방 '희망학교'를 시작으로 장애인 치과진료, 독거노인 도배봉사, 동작주민 페스티벌, 지역사회 네트워크 결성 등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찾은 날은 '희망학교'의 청소년 공부방 교사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희망동네 유호근 사무국장이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그냥 공부방이 아니라 학원 식의 청소년 공부방이다. 사교육에 반대하면서 청소년 공부방을 여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었고, 가난한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고 싶기도 했다. '봐라, 가난한 아이들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똑같이 성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보이고 싶었달까. 지금은 경제력이 잠재력까지 평가하는 시대 아닌가. 어려운 애들 공부 시키면서 그 평가기준이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학벌주의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민운동가적인 발상 아닌가?

탁상공론을 펼치면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한다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이것이 풀뿌리 운동의 원칙이다. 땅에 발을 디뎌야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지, 하늘에 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서 성장시키는 것은 변화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한 사람 씩을 키웠던 것이 사회에 더 큰 역할을 하더라.

희망동네가 다른 풀뿌리 운동 조직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관악구의 경우는 철거지역에서 철거민들이 모이고 그것에 대응해 단체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며 풀뿌리 운동이 주민들로부터 자생적으로 생성되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하지만 동작구는 희망동네 이전에는 주민운동이 전무했다. 때문에 희망동네는 역으로 시작해야 했다. 단체를 먼저 만들었고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역 네트워크를 시작했다.

이 단체들과의 관계망을 조직하는 것을 우선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을 이제야 만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조건이니 우린 역으로 내려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형적으로 시작했지만 위에서부터 그림을 그리다보니 교통정리가 잘 되어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중요한 건 주민의 참여다. 올해부터 3~4년간은 주민을 만나는 것에 모든 주의를 기울일 생각이다. 풀뿌리 운동의 핵심은 결국 주민이다. 주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지역 네트워크가 왜 중요한가? 장애인지

청소년 공부방 희망학교의 교사모임 중인 희망동네의 활동가들



원네트워크를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인면서 실직자이고 또한 유병자인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는 의료와 고용 등 여러 부문의 연계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동작구에 인프라가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보니 생활협에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공부방 등을 지원할거다. 이것으로 지역사회가 더 잘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몇 년 안에 열 개 이상 만들려고 한다.

가장 애정을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은 무엇인가?

의정감시단이다. 몇 년 해보니 풀뿌리 조직이라면 꼭 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성과가 있었나? 성과 굉장히 많았다. 의정감시단은 2007년에 지방자치의원 의정비 과다인상을 규탄하면서 만들어졌다. 첫해에는 본격적인 의정감시보다 방청의 수준에 머물렀지만 보완하여 다음해부터는 평가내용을 구체

화하고 우수의원 시상도 시작했다. 이것을 근거로 모니터링 평가서를 만들어 주민들과 공유도 한다. 이걸 3년간 지속적으로 하니 구청이나 구의원과 소통의 폭이 넓어지고, 구 의회에서 다루지는 다양한 의제를 접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 전국에서 우리처럼 의정감시단을 3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곳은 없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력이 분산되면 무엇을 바꿔가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되는 만큼 한다. 비가 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지 않나. 우리도 마찬가지다. 한번 해서 되지 않으면 내년에 하고, 또 되지 않으면 그 후년에 한다. 이렇게 2년이 걸려 성과를 얻은 사업도 있고, 3년이 걸린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성과보다는 꾸준함이다.

풀뿌리 운동은 어떤 시민운동보다도 시민의 참여가 활발해야 한다. 자발적 봉사활동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과의 소통에서 벽을 느끼지는 않았나?



의정감시

지역운동은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지 않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성과가 나온다. 그 이후에는 성과들이 배가되어 나타나지만 막상 성과가 생길 때까지 참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다.

지역운동은 10년의 밑 작업이 필요하다. 사업가처럼 1년 안에 승부를 내려고 하면 할 수 없다. 사람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 하지만 한두 번 만난다고 신뢰가 쌓이지는 않는다.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짓어들 듯이 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사람이 변해있더라.

희망동네와 한국 풀뿌리 운동 단체가 개선 돼야 한다면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니?

희망동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풀뿌리 단체들은 철저하게 주민에게 천착해야한다. 정말 주민들 속에 들어간 풀뿌리 단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단체라면 최소한 그 지역 주민의 10%는 그 단체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 희망동네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작구민의 1%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가 회원이면 한 달 재정이 4,000만원이다. 풀뿌리 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인정하고 사랑하며, 직접 운영까지 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희망동네도 다른 풀뿌리 단체들도 아직 부족하다. 풀뿌리 단체는 정말로 풀뿌리가 돼야 한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활동가가 플래카드를 걸어 시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평범한 아주머니가 아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데려오는 것이다. 희망동네가 상도 3동에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모임'을 만들었는데, 결성의 주체가 동네의 한 아주머니였다. 그분이 동네 아주머니 7분을 모셔왔다. 몇몇 이슈 파이팅으로 법을 만들고, 예산을 따내는 것은 신기루와 같다. 금방 사라지고 만다. 이슈 중심의 전국적 부문 시민운동이 아니라 지역적 종합 시민운동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 생활공간에서 시작한 관계와 그곳에서 쌓은 신뢰가 정말로 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다. *김민*

희망동네-cafe.daum.net/hopedongjak

글 최이삭 | <희망세상> 독자편집위원